

### 저레의 통일 속망을 들어주시려고 (2)

지금으로부터 77년전 8월 온 저레는 조국해방의 환희와 격정에 휩싸여있었다.

그러나 외세의 검은손은 조선민족에게서 해방의 기쁨을 여지없이 빼앗아갔다.

일제의 패망이 기정사실화되기 바쁘게 우리 민족의 평토에 제멋대로 북과 남을 가르는 저주로운 분계선을 그은 미국은 《해방자》로 자처하며 피눈은 군화발을 남조선에 들어놓자마자 조선의 영구분열을 획책하였다.

당시 미국은 남조선의 매국배족 세력을 부추겨 유엔의 간판밑에 범죄적인 《단선단정》 조작행동을 악랄하게 벌여왔다.

외세의 책동에 의하여 나라의 분열이 고착화될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었던 그 시기 어버이수령님께서 미국의 민족분열책동을 반대하고 전조선적인 민주주의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남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평양에서 열자는것을 받기하시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련석회의 소집방안은 사상과 정견, 리념과 주의장치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을 조국통일실현에로 부르는 애국애족적제안이었다.

그런데 걸어온 행로와 경력, 리념이 서로 다른 각계층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여앉게 하는것이 사실 수월한것이 아니었다.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반공을 일삼아온 저들의 과거행적에 대한 위구심으로 하여 평양에서 열리는 련석회의에 참가하는것을 주저하였다. 게다가 련석회의소집을

가로막아나서는 미국과 매국역적들의 방해책동도 악랄하게 벌여졌다.

바로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 백범 김구선생의 소견을 가지고 찾아온 련락원을 만나주시었다. 그를 통해 김구선생의 심중을 헤아려보신 수령님께서 반공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일은 다 백지화한다고, 과거분분의 원칙은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확립된 전통이라고 명백히 교시하시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실사 지남날 다른 길을 걷은 사람이라고 해도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통일의 길에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도량에 감



## 전민족적인 통일회합을 마련하시어

복하여 김구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은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련석회의에 참가할 용단을 내리었다.

그들의 뒤를 따라 련석회의참가를 주저하고있던 중간, 우익계열의 정당, 단체들도 앞을 다투어 회의참가를 결정하고 련이어 평양으로 찾아왔다.

하여 주제37(1948)년 4월 평양에서는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련석회의인 남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가 진행되게 되었다.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조선정치정세》라는 련석회의보고를 하시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보고에서 우리 나라

에 조성된 정치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는데 기초하시어 미래의 조국분열책동을 반대하고 전조선적인 민주주의적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팔잡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남북련석회의에서는 《조선정치정세에 대한 결정서》와 《전조선민족통일정부를 위한 결의서》라는 격문을 채택하였다. 결정서와 결의서에서 조선민족은 단선정치에 의하여 꾸며지는 괴뢰정부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진정한 통일정부를 세울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

언하였으며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미래의 칙략도구인 《유엔립조선위원회》의 감시밑에 감행되는 남조선단선정부를 저지파란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팔잡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른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를 가지더라도 여러 정치세력들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회의에 참가한 남조선의 우익계열들도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어 평양에서 북과 남의 애국적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독립을 전취할 때까지》를 합의한것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라고 하면서 련석회의인 남조선련석회의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시 련석회의가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미국의 한 출판물도 《미국의 남조선단선정치강행정책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은...1948년 4월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평양에 모여 련석회의를 개최한것으로 정점을 이루었다.》고 전하였다.

참으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와 현명한 령도에 의해 마련된 련석회의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뜻깊은 장을 아로새긴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김철진

주제 84(1995)년 1월 어느날 이른새벽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급히 전화로 한 일군을 찾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가 빨리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하시었다.

당시 일본의 효고현을 비롯한 긴키지방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인적, 물적피해를 당하였는데 제일동포들이 입은 재난도 컸다.

하루아침에 생애같은 혈육들과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모든것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동포들의 정상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지진피해가 있는 다음날 아침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피해지역 동포들,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문과 예도의 뜻을 표하며 총련의 모든 조직들과 동포들이 단합하여 지진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안착된 생활을 이룩하기를 바라는다는 내용의 위문전문을 총련에 보내주시었다.

절세위인의 뜨거운 동포애가 자자구구에 담겨진 위문전문을 접한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걱정으로 눈물을 적시며 피해복구에 떨쳐나섰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불행과 슬픔을 겪고있는데 우리가 가만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지진피해를 입은 총련동포들에게 돈을 보내줄데 대하여 이르시었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당시 공화국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고있었다. 한푼의 자금도 귀한 때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문금을 보내실것을 결심하시었던 것이다.

제일동포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가해주는 일이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설사 우리가 죽을 먹고 굶는한이 있더라도 위문금을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거듭 이리시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을 우려는 일군들의 뇌리에는 오래전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주는 문제를 놓고 뛰노 뛰노해도 민족이 제일이라고, 도와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러하여 제일동포들에게 나라가 그처럼 어려운 때에 지역의 위문금이 돌려지게 되었다.

《1995년 국제10대뉴스》의 하나로 된 일본의 대지진은 그 재해상황으로 볼 때 기록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도 절세위인의 하늘같은 인덕이 이역만리에 찬란히 빛날것으로 하여 련석회의에 더욱 뚜렷이 새겨지게 되었다.

본사기자

### 이역만리에 비쳐든 따사로운 햇빛

은 인덕이 이역만리에 찬란히 빛날것으로 하여 련석회의에 더욱 뚜렷이 새겨지게 되었다.

### 평토의 천재

## 새로운 평양속도가 창조되던 나날에

어느덧 10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다.

민족의 반만년력사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한 이 기간에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새인을 늘려오는 거창한 창조와 전변의 새 련이 펼쳐졌다. 이 나라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시험하며 혹독한 시련과 난관들이 수없이 앞길을 가로막아왔지만 그 격난들을 뚫고 헤쳐나오는 찬란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내달려왔다.

이 잊지 못할 나날들에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 신념으로 더욱 굳어졌이 있었으니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는 과학이고 승리이며 그이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것이다.

의 세심하고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이 깃들여왔다.

주제103(2014)년 5월 김책공업 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강기슭에 현대적인 과학자거리를 건설하도록 하시고 그 이름을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해주시었다.

그리고 주제104(2015)년 2월 어느날에는 몸소 하늘길에 오르시어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의 모습을 일일이 부감하시고 그그로 현장에 나오시어는 모든 건축물들을 자기의 특색,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면서도 과학자거리를 상징할수 있게 독특하게 일떠세우도록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은 1970년대, 1980년대의 건설전투장을 방불케 한다고, 이곳에서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가 창조되고 있다고, 이런 속도로 나가면 가까운 앞날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평양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더욱 훌륭히 일신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시었다.

인민이 누리게 될 최고의 문명을 창조하시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변불휴의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었다.

천히 거리의 중심축도 새로 정비주시고 미래과학자거리를 상징하는 주력도 건설하며 건물들의 형식을 지난 시기와는 완전히 새롭게 하도록 설계가들에게 이르시었다.

그리고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다.

하늘의 별을 따서라도 과학자들에게 금방석을 펼쳐주시려는

그 사랑에 떠날때 세대마다에 공동살림방과 부모방, 부부방과 자식방, 부엌이 손색없이 꾸러지고 고급가구까지 빠짐없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새 거리에 준비하게 일떠세운 봉사시설들도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깃들여왔다.

은 나라의 천만가지 크고작은 일을 다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시켜주시 미래과학자거리의 공공건물들과 봉사시설형성안은 무려 15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경애하는 그이의 뜨거운 인민사랑과 세심한 지도의 손길아래 초고층살림집들과 광장삼림, 튜경장미원을 비롯한 봉사망들이 시간을 주름잡으며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한 10월 어느날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궁궐같은 살림집에서 살게 될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을 그려보시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라고, 미래과학자거리를 보니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는 우리 조국이 10년후엔 더욱 물라보게 전변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창조되려와 통라인민위원의 형식을 지난 시기와는 완전히 야외의형상,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이 일떠세운 대동강반에 웅장화려하여 미래과학자거리가 솟아오르는데 이어 과학기술전당과 대동강수산물식당이 건설되어 평양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본사기자 황금숙

평양시에 5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간절한 소원중의 하나이다.

오로지 인민을 마음속 첫자리에 놓으시고 자신의 심신을 깃 그리 불태워 인민을 위한 일이 되고 열이 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속연에 떠받들려 송신, 송화지구에서 인민의 새 거리,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사회주의변화가 일어났다.

머지않아 인민들이 자기 손으로 준공페드를 깔고 보급자리에 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고, 자신의 소망이 또 한가지 풀리게 되었다고 그리고 기뻐하시며 래일까지 인민들이 새집들이를 할수 있게 완벽하게 마무리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세집을 받아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할 사랑하는 인민들의 모습이 금시라도 눈앞에 보이는듯, 집집의 창가에서 울려 나오는 자식들의 행복의 노래소리를 들으시는듯 만면에 환한 미소 지으시고 송신, 송화지구에서 일떠세운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돌아보시는 그이를 우르르며 인민들은 걱정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은 소원에는 자신을 위함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인민을 위한 소원만이 있으며 그 소원 한가지만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 참으로 헤아릴수 없는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는것을.

이 나라의 첫새벽을 남먼저 맞으시었던 위대한 장군님을 대신하여 이제부터는 자신께서 조선의 첫 새벽문을 열것이라고

원수님의 소원

단순히 고마움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들이 받아안게 될 더없는 행복에 대한 걱정과 분출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갈 맹세의 눈물이기도 하였다.

이 나라 인민은 알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품고계시

고 노래부른다

인민의 부러움을 행복을 쫓아주시며 천만밤 쌓인 피로 잊으시는 원수님. 먼동이 먼동이 떠오는데 이밤도 지새실까 원수님 원수님 창밖에 나무위도 잠들었습니다

진정 이 나라의 하루는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원과 그이의 안녕을 바라는 인민의 소원을 안고 흘러간다. 인민의 행복만을 바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소원, 자애로운 어버이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인민의 소원이 끝없이 교차되어 흐르는 이 땅에 펼쳐진 송신, 송화지구의 별천지를 보며 인민은 다시금 알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다는것을 본사기자 리연선

## 시조 사랑의 자옥우에 꽃피는 일화 (3)

화가 김영일

### 쉬이 나설수 없구나

도시의 극장도 부럽지 않다는 중흥리문화회관 문열고 들어서니 발걸음 땀수 없구나 예술소조원들 러치는 격정에 가슴젖어

수십년전 삼도공구집회에서 앞으로 백두대지에 문화주역이 준비하게 늘어설것이라고 인민들과 하신 장군님 그 약속

우리 원수님 장군님 그 약속 지켜 눈내리는 날에도 불별이 쏟아지는 날에도 여기 삼지연땅 찾고왔으시었다 인민의 리상향 펼쳐주시었다

### 우리는 삼지연을 떠나지 않는다

아, 그림은 시각의 언어라 했지만 아무리 애써 그려도 삼지연사람들 그 감격 그 격동 담지를 못해 아쉬움에 붓을 놓을수 없거니 문을 쉬이 열고 들어서 문화회관 쉬이 문 열고 나설수 없구나

저 백두의 솟는처럼 리없이 맑은 아이들의 웃음 생생히 그려냈던가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공장에서 울려나오는 세찬 동음의 활력

기세차게 박동있게 그려냈던가

한장한장 그려낸 그림은 많았어도 못다 그린 화폭을 남기고 가는데

자꾸만 더디어지는 발걸음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는 눈길

아, 삼지연 정든 땅이 아름다운 땅이

### 얼백장 그려도 천만장 그려도

다 담을수 없는 원수님의 그 헌신의 세계 그 헌신으로 살아오신 인민의 행복 어느 명화가인들 담을수 있리라 한결 아쉬움없이 그려낼수 있리라

오리라 다시 오리라 이 백두에 농촌진흥의 표준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이 삼지연땅에 다시 오리라 두근두근 전해갈 원수님사랑 화폭에 담아 련석에 길이 전해가리라

떠나지고 재촉의 경적은 울리지만 결코 이 길은 삼지연을 떠나는 길 아니리라 마음속으로 삼지연과 더 가까워지는 길

오, 우리는 삼지연을 떠나지 않는다



내리는 하나하나의 눈송이도 뜨거운 그 사연 속삭이는 땅 백두대지의 천지개벽은 인민을 위하시는 장군님 뜻 받들어 우리 원수님 안아오신 총성의 별천지

오늘도 귀전에 쟁쟁히 들려와라 장군님의 고향땅 백두산이 솟아있는 정든 고장에서 훌륭한 문화생활 누리라 행복과 부리를 따듯이 축원하심 우리 원수님의 다정하신 그 음성

리칠수록 더더욱 목이 메여오고 들을수록 가슴찌릿한 그 격정의 토로 정갈 아쉬워라 예술소조원들의 모습만을 그린다는데가 이 불같은 격정 그림에 담지 못하는것이